

미래 먹거리시장 판도 바꾼다

스마트미디어산업으로 먹거리산업 육성

전주서 전문가·기업 참석 컨퍼런스 개최

전주시가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와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미디어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K-ICT 전북(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29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스마트미디어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전략 논의의 장을 열었다.

'미래 콘텐츠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는 K-ICT 전북(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지역 스마트미디어산업의 신산업창출과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기조강연과 컨퍼런스, 스마트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스마트사이니지 기술 및 사업방향'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

선 김합섭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로봇 등 기술의 융합으로 사람과 사물, 공간이 서로 연결되는 초 연결, 초 지능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 IT와 디지털 융합 기술로 사용자 맞춤형으로 콘텐츠와 광고를 제공하는 스마트 사이니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아이템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아영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연구원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패션'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물결을 타고 빅데이터와 패션디자인 제작 및 상품화, 유통 및 보급, 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존 디지털 산업 트렌드 자체를 근본부터 뒤엎고 있다"라며 "일상 속의 친숙한 것들이 기술과 끝없이 융·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해야 앞으로의 패션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해외사례'를 주제로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광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138억 달러(한화 150조원)에 육박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오는 2020년이면 연평균 13% 가량 성장하면서 314억 달러(한화 341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플렉서블 OLED, AR/VR 인터페이스, ΔSNS 사이니지 등 국내외 사이니지 시장의 사례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끝으로, '4차산업과 AR·VR의 활용'을 주제로 발제한 박선우 (주)서커스 컴퍼니 대표는 "인간의 욕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가장 고차원적이면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자기실현 및 자기표현 욕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며 "AR과 VR은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필수 기술로서 스마트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일상을 주도하는 기본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일반시민들이 프로젝트 맵핑과 AR·VR, 3D 프린팅

등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체험존도 운영됐다. 특히, 사람 형상과 유사한 홀로그램과 태블릿 PC를 활용한 웹툰 창작 체험, 사무실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텃밭을 가꾸는 'Farm Bot' 등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스마트미디어 산업 동향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성 있고 유망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 및 창직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면서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전주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이 운영하는 K-ICT 전북(전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핵심 분야인 미디어파사드와 디지털사이니지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창업 인큐베이팅 및 지역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전주를 비롯한 전북 권역 전체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2018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따른 공개 추첨이 29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신축공사 부정부패 척결 약속

전북교육청-10개 시공업체 오늘 청렴 공동협약식 진행

전북도교육청과 교육시설공사 관계자들이 30일 맑은 전북교육 실현과 건설시공을 다짐하는 청렴 공동협약식을 맺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군산 은파초 신축공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협약식에는 군산 은파초, 산들초 신축공사 등 4개 현장 시공업체 10개사 대표 및 현장대리인이 참석한다. 도교육청에

서는 시설과장, 담당자가 참석한다. 도교육청과 시공자들은 이날 부실 시공 방지와 부정·부패를 척결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감독자인 도교육청은 공적으로 투명하게 감독하고 급료·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을 것을 약속한다.

시공자들은 ▲수주 및 시공과정에서 급료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 근절 ▲부실시공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시공 최선 ▲윤리

경영 ▲친환경 자재 사용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을 다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청렴협약식은 시공자와 감독자가 시설공사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을러 발주청과 시공자간 소통으로 상호 이해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라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시공자간 청렴협약식은 이번이 13번째이며 시공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해은 기자

찾아가는 학생 안전교육 운영 재난상황 대처능력 제고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전북도학생교육원(원장 김형택)은 군산대성중, 완주 용진중, 정읍 고부중 등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달 4일부터는 완주 체육중학교, 남원중학교 등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생활 속의 안전실천 건강한 우리학교'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 식중독 예방, 체험활동안전, 재난 상황의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 기도폐쇄 조치법 등을 교육하는 심폐소생술 실습 △생활안전 O, X 퀴즈대회인 '안전 골든벨을 울려라!' 등 세 분야이며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전북학생교육원 관계자는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재난 등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유재훈·방수미씨 국제 학술지 논문 잇따라 게재

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전대대학원 광전자연구실(지도교수 나석인) 대학원생들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논문을 게재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유재훈 대학원생(석사과정·사진 왼쪽)은 최근 전도성 고분자와 환원된 산화 그래핀 물질을 적용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광전변



환효율 및 수명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Nanoscale' (back cover)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방수미 대학원생(석사과

정·사진)은 전자주계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공액 유기화합물을 유기태양전지의 광활성층에 적용하여 유기태양전지의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 결과를 'RSC Advances, Dyes and Pigments'에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한전전력연구원의 'BIPV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위한 계면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 융합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정해은 기자

무작위추첨 '처음학교로' 공개선발

전북도교육청 시스템 구동 유치원 관계자·학부모 참관

2018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따른 공개 추첨이 29일 오전 10시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추첨은 유치원 모집·선발 업무 관계자와 학부모가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추첨은 특수교육대상자, 법정 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 대상자 등은 우선 모집 기간을 통해 선발된 유아를 제외하고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추첨은 각 유치원장이 '처음 학교로'에서 선택한 선발기준번호를 이용하여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유번호 부여 후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었다. 29일 추첨 후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학부모들에게 전송되고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를 통해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유아의 학부모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처음 학교로'를 통해 접수한 학부모는 직접 '처음 학교로'에서 온라인 등록 절차를 거치고 현장접수를 한 학부모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현장 등록해야 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립문화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